



KOREA UNIV SEJONG

AICS NEWS LETTER



2024_01.ver

CONTENTS

Vol. 3 | 2024_01.ver

AICS People

- 00 신입 교수님 만나뵙기
조금환 교수님과의 인터뷰
- 00 2023 충청권 사이버보안경진대회
수상자 '23 황수민 인터뷰



AICS Events

- 00 개강총회 진행
즐거운 새학기의 시작을 축하하며
- 00 응원 OT 진행
고려대학교의 전통을 이어받다
- 00 학과 MT 진행
인사보의 하나되는 날속으로
- 00 과학기술대학 행사 진행
고려대학교에 인공지능사이버보안을
외치다



COVER STORY

표지는 인공지능사이버보안학과 학우 일부가 모여 캠퍼스에서의 즐거운 모습을 담았다.

왼쪽부터 순서대로 심재규('24), 최은규('18), 조민혁('19), 이창민('20), 한지훈('19), 권호영('24), 김자준('24), 배은서('23), 이정윤('23), 김주빈('23), 박수연('22), 이승우('24)이다.

조금환 교수 인터뷰

인공지능사이버보안학과의 신임 교수 조금환 교수에 대해 알아보다.

조금환 교수는 2024년 1학기에 인공지능사이버보안학과의 신임 교수로 임용되었다. 이전에 국가보안기술연구소에서 선임연구원으로 활동한 경력을 가진 그는, 학과의 지속적인 발전을 위해 학생들의 다양한 성장을 지원하는 데 큰 열정을 가지고 있다. 학생들이 해킹, 보안 관제, 침해사고 대응 등 다양한 보안 분야에서 전문성을 갖추도록 돕고자 하는 그의 비전은 학과에 새로운 활력을 불어넣을 전망이다.

조금환 교수와의 인터뷰를 통해 그의 연구 분야, 교육에 대한 접근 방식 및 향후 계획에 대해 자세히 들어보았다.



Q. 교수님의 자기소개 부탁드립니다!

A. 제 소개에 앞서 인공지능사이버보안학과 뉴스레터에 인터뷰 할 수 있게 되서 영광입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2024년 3월 부터 인공지능사이버보안학과에 신임교원으로 임용된 조금환입니다.

학교에 오기 전에는 국가보안기술연구소에서 선임연구원으로써 사이버 침해사고에 대응하기 위한 필요해 연구 및 개발을 한 경험이 있습니다.

Q. 교수님께서 인공지능사이버보안학과에 어떤 비전을 가지고 계시나요?

A. 우선 저희 학과는 지난 몇 년간 학과 평가에서 최우수학과로 선정되고 교수님들께서 학과를 위한 많은 사업을 주하시는 등 짧은 시간에 많은 발전을 이룬 것으로 알고 있어요. 좋은 교수님들을 도와 학과가 더 많이 발전하는데 조금이나마 역할을 하고 싶은 마음이 큼니다. 학과의 발전은 결국 학생들의 성장이라고 생각해요. 저희 학과 학생들이 각종 국내외 해킹 컨퍼런스 대회에 참가해서 좋은 결과를 거두었는데, 해킹 분야 뿐만 아니라 자신이 원하는 분야에서 학생들이 성장할 수 있도록 학과가 발전해야 된다고 생각해요. 보안 분야만 하더라도 해킹, 관제, 침해사고 대응, 보안 소프트웨어 개발, 개인정보보호 등 학생이 원하는, 학생과 맞는 그런 분야에서 성장할 수 있도록 학과가 도움이 될 수 있도록 학과의 일원으로 함께 노력하고 싶습니다.

Q. 본 학과의 신입 교수로서 학생들에게 가장 중요하게 가르치고 싶은 것은 무엇인가요?

A. 대학에서는 교수님들이 가르쳐 주는 것도 있지만 학생들 스스로가 어떤 걸 경험하고 도전하는지가 중요한 것 같아요. 많이 도전하고 많이 경험 했으면 좋겠습니다. 실패해도 다시 일어설 수 있는 젊은 나이니까 두려워 하지 않았으면 좋겠고, 항상 자신감을 가졌으면 좋겠습니다. 자만하면 안되겠지만 자신감이 부족하면 잘 할 수 있는 공부도 연구도 잘 못할 수 있습니다. 내가 하고 있는 일에서는 내가 최고라는 생각으로 항상 자신감을 갖고 모든 일을 하는 인공지능사이버보안학과 학생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Q. 교수님의 주요 연구 분야는 무엇이며, 이 분야를 선택하게 된 동기는 무엇인가요?

A. 저는 박사과정 때부터 매우 다양한 분야의 연구를 수행했습니다. 그 중에서도 가장 많은 연구와 성과를 갖고 있는 분야는 Usable security인데요. 이 연구분야에 대해서 많이 생소할 것 같아 설명을 드려야 할 것 같아요 보안은 늘 secondary task입니다. 예를 들어 이메일을 보내는게 primary task고 이메일의 보안을 위해 패스워드를 사용하는 보안 수단이 secondary task입니다. 사람들은 이메일을 보내는게 목적이기 때문에 쉬운 패스워드를 선택하는 경향이 있습니다. 이유는 복잡하고 어려운 패스워드를 사용하면 기억하기 어렵기 때문입니다. 제가 연구한 Usable security 분야는 사람들이 기억하기 쉬우면서도 보안이 강한 패스워드를 어떻게 하면 생성하게 사용자를 도울 수 있을까? 하는 분야를 연구합니다. 즉, 보안성과 사용성을 둘다 만족할 수 있는 보안 솔루션을 만드는게 목표가 되는 연구분야입니다. 이 분야는 실제 사용자를 바꿀 수 있는 실제 사용할 수 있는 그런 보안 솔루션을 연구 개발하는 분야이기 때문에 굉장히 흥미로웠습니다. 그래서 이 분야의 연구를 선택하게 되었습니다. 이외에도 security protocol, threat modeling, AI 기반 메모리 포렌식 등 다양한 분야를 연구했습니다. 저와 함께 연구하고 싶은 학생이 있으면 언제든지 연락주세요:)

Q. 향후 연구 계획과 목표에 대해 설명해 주실 수 있나요?

A. 현재는 학교에 온지 얼마 되지 않아서 수업하기도 참 바빠요.ㅠㅠ 연구실도 만들어가는 과정이어서 지금 당장 연구를 하고 있는 못합니다. 방학이 되면 조금 여유가 생겨서 연구를 할 수 있을 것 같아서 무척 기다리고 있어요. ransomware 관련된 연구나 메모리 포렌식을 이용한 악성코드 분석 등 몇 가지 연구들을 하고 싶어서 방학을 무척 기다리고 있는 상황입니다:) 혹시 같이 연구하고 싶은 학생이 있으면 함께해요~

Q. 학생들과의 연구에서 가장 중점을 두는 점은 무엇인가요?

A. Top-down 방식의 연구가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학생들이 연구와 공부에 있어서 혼동을 하는 경우가 많다고 생각합니다. 흔히들 "나는 기초가 부족해서 기초를 다지기 위한 공부를 많이하고 난 뒤에 연구를 잘 할꺼야" 라고 생각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런데 사실 연구는 그렇지 않습니다. 내가 관심있는 분야에서 어떤 문제를 찾았으면 그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바로 연구를 시작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연구를 진행하다 기초가 부족해서 막히는 상황이 오면 그 부분만 빨리 공부하고 다시 문제 해결을 시작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문제를 찾고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필요한 것들을 찾고 부족한 부분을 채워가면서 연구는 계속 진행하는 그런 과정이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Q. 학생들이 교수님의 강의와 연구에서 얻을 수 있는 가장 큰 이득은 무엇이라고 생각하시나요?

A. 강의하는게 아직 익숙하지 않아서 스스로 많이 부족하다고 생각합니다. 학생들이 수업을 듣고 해당 과목에서 핵심이 되는 내용만이라도 기억하고 종강했으면 하는게 작은 바람입니다.저는 결국 학생들이 공부하고 연구하는 이유가 미래에 좋은 곳에서 내가 원하는 일과 연구를 하고 싶어서라고 생각합니다. 저도 학생일 때 그랬으니까요. 제가 갖고 있는 것이 많다고 생각하지 않지만 학생들이 제가 갖고 있는 모든 걸 다 가져가서 자신이 원하는 바를 이루는데 조금이나 도움이 될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인공지능사이버보안학과 학생이라면 누구라도 제가 경험했던 것에 대해서는 아낌없이 이야기 해 줄 수 있고 같이 고민하고 힘들어 할 수 있습니다. 언제든지 제 연구실 문을 knock 해주세요!!

2023 충청권 사이버보안경진대회



2023 충청권 사이버보안경진대회 진행 및 수상자 인터뷰

충청권 사이버보안경진대회는 2023년, 한국보건산업진흥원과 국가정보원이 공동 주최한 충청권 최초의 오프라인 경진대회로, 충청권 소재 대학(원)생들을 대상으로 개최되었다. 본 학과의 박현, 김민욱, 황수민 학우(TEAM Address Sanitizer)는 우수상을 수상하여 한국보건산업진흥원장상과 200만원의 상금을 받았다. Team ASAN 멤버 중 황수민 학우와 인터뷰를 진행하여, 본 학과가 대회 수상에 긍정적인 영향을 준 점과 후배들에게 주고 싶은 조언에 대해 물어보았다. 이 인터뷰가 추후 CTF 대회에서 수상을 희망하는 학생들에게 도움이 되길 바란다.



▲ 우수상을 수상한 'Address Sanitizer' 팀

2023 충청권 사이버보안경진대회 수상자 황수민 학우 인터뷰

Q1. 먼저, 자기소개를 부탁드립니다. 그리고 CTF 대회 참여 계기에 대해 설명해주실 수 있나요?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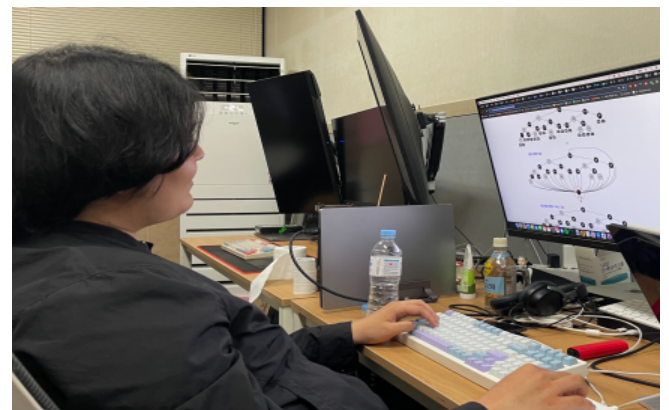
A1. 안녕하세요. 저는 22학번 황수민입니다. 어릴 때부터 보안에 관심이 많아 평소 꾸준히 공부해왔습니다. 또한, 보안을 주제로 후배, 동기, 선배들과 교류하면서 학습해나갔습니다. 이번 대회에는 마음이 잘 맞는 23학번 후배들인 박현, 김민욱 학우와 함께 참가하게 되었습니다.

Q2. 이번 CTF 대회에서 어떤 부분을 담당하셨나요? 구체적인 역할과 주요 책임에 대해 설명해 주세요.

A2. 이번 대회에서 저는 주로 시스템 해킹 분야를 담당했습니다. 평소 시스템 해킹에 흥미를 느끼고, 자신 있는 분야였기 때문입니다. 대회 전날에는 박현 학우와 함께 대회 전략을 논의하며 준비했습니다. 대회 당일에는 김민욱 학우와 박현 학우가 훌륭하게 역할을 수행해주어, 팀빌딩 최대 인원이 4명이었지만 3명으로도 2등을 차지할 수 있었습니다.

Q3. 인공지능사이버보안학과에서 배운 지식 중 어떤 것이 이번 대회에서 특히 유용했다고 느끼셨나요?

A3. 인공지능사이버보안학과에서 배운 모든 내용이 유용했다고 생각합니다. 특히 김희석 교수님의 암호수학 강의가 큰 도움이 되었습니다. 수학이 약했던 제가 김희석 교수님의 강의를 통해 CTF 대회에서 암호학 문제를 도전할 수 있는 기회를 얻었습니다. 또한, 황혜정 교수님의 알고리즘 수업을 통해 알고리즘 패턴을 배우며 리버싱 능력에도 도움이 되었습니다. 학과 공부를 기반으로 개인적으로 꾸준히 공부해 나간다면 더 좋은 결과를 얻을 수 있을 것입니다.



▲ 알고리즘을 공부중인 황수민 학우의 모습

Q4. 학과에서 CTF 대회와 같은 실전적 경험을 쌓을 수 있는 기회를 얼마나 자주 제공하나요?

A4. 평소 인공지능사이버보안학과 특방에 올라오는 CTF 홍보 글, 경진대회 글 등 다양한 경험을 교수님들께서 직접 도움을 주십니다. 또한 선배님들은 같이 식사 할때나, 수업이 끝나고, 보안 진로에 대한 고민을 많이 들어주시고, 평소에 듣지 못했던 보안 소식을 잘 알려주십니다. 후배들은 공부해나가는 이야기나 CTF 참여 후기 등 평소에 알지 못했던 지식을 알려주어 이러한 선후배 관계도 평소 경험을 쌓는데 좋은 것 같습니다.

Q5. 마지막으로, 후배들이나 같은 분야에 관심 있는 이들에게 해주고 싶은 조언이 있다면 말씀해주세요.

A5. 후배들이나 보안에 관심 있는 사람들에게 해주고 싶은 말은 먼저 재미를 찾는 것이 중요하다는 것입니다. 저는 공부하면 언젠가는 보상받을 수 있다고 믿으며 지속적으로 공부해왔습니다. 물론 공부하면서 힘들 때도 많았고 포기하고 싶을 때도 있었습니다. 그러나 결국 재미를 느끼면서 꾸준히 공부해온 것이 좋은 결과를 낳았습니다. 여러분도 흥미를 가지고 꾸준히 공부하다 보면 좋은 성과를 얻을 수 있을 것입니다.

취재: 뉴스레터 2기 이창민('20)



2024년 1학기 개강을 환영해~!

개강총회

안녕하십니까! 우렁찬 FM소리가 들리는 인공지능사이버보안학과 개강총회로

매학기 시작의 등용문 개강총회가 열렸습니다.

1학기 개강총회는 새내기와 재학생, 교수님의 첫 만남이라 더욱 소중한데요.

설레는 그 첫만남 이야기입니다.

인공지능사이버보안학과의 24학년도 1학기 개강총회는 신정문 앞 술이야에서 03월 11일 19시에 열렸습니다. 24학번 새내기들은 처음으로 선배들과 교수님을 만나는 행사였습니다. 본격적인 행사가 열리기 전, 선배들의 고려대학교의 전통인 FM 시범이 있었습니다. "안녕! 안녕! 안녕하십니까! 저는! 민족~고대! 자유~과기! 철통~보안!" 우리 학교와 학과의 정체성을 알리는 FM의 매력에 새내기들도 흠뻑 빠진 듯 보였습니다. 8대 학생회와 교수님들의 노력으로 아무도 다치지 않고 즐거운 개강총회를 만들 수 있었습니다.

개강총회에 참석해주신 오랜만에 보는 얼굴들과 신입생들의 설렘이 가득한 모습은 그날의 분위기를 한층 더 화기애애하게 만들었습니다. 특히 교수님들께서 직접 참석해주시고, 학생들과 함께 소통하며 학과에 대한 애정과 지지를 보여주셨습니다. 행사 후반부에는 신입생들과 선배들이 자유롭게 대화를 나누며 친목을 다지는 시간이 마련되었고, 이 과정에서 신입생들은 선배들로부터 학교 생활과 학업에 대한 조언을 들을 수 있었습니다.

개강총회에 참석한 학우들의 눈에 앞으로의 학과 생활에 대한 기대감과 희망이 엿보였습니다. 이번 개강총회는 인공지능사이버보안학과의 구성원들이 하나로 뭉쳐 앞으로의 학기에도 성공적인 학업과 활동을 이어나갈 수 있는 좋은 출발점이 되었습니다.

취재: 뉴스레터 2기 최수빈('21)

AICS Events

새터 진행

2024 신입생들의 첫 도약이 될 “새내기 배움터”

매년 2월이 되면 새로 입학하는 새내기들은 설레는 마음을 가지고 대학교의 첫 행사인 새내기 배움터에 참가하게 된다. 2024년 역시 2월 19일부터 21일까지 3일간 강원도 태백 오투리조트에서 개최되었다. 고려대학교 세종캠퍼스의 24학번 학우들은 19일 아침 9시 30분까지, 각 단과대 및 학과끼리 모여서 함께 이동했다. 이번 새내기 배움터에 참가하는 인공지능사이버보안학과 재학생 및 신입생은 총 35명이었다.

인공지능사이버보안학과 신입생 학우들은 과학기술2관에서 한미란 교수님과 학과 OT를 진행하였다. 교수님은 인공지능사이버보안학과의 교과 과정과 졸업요건, 생활 공간 등 앞으로의 학교생활에 필요할 정보들을 전달했다. 이후, 학생회 선배들과, 신입생 학우들이 처음으로 인사를 나누며 점심 식사를 하고, 새내기 배움터가 열릴 강원도로 출발하였다. 긴 시간 동안 버스를 타고 도착하여 침도 풀고, 2박 3일 동안 한 방을 쓸 학우들과 이야기를 나누며 휴식을 취했다. 저녁 식사로 배고픈 배를 달래고, 휴식 및 술자리를 가지며 첫 번째 날이 마무리되었다.



▲ 새터 응원제 진행 모습

2번째 날은 공연과 응원제로 하루가 알차게 구성되어 있었다. 다양한 학교 동아리의 공연들은 때로는 감성적이었고, 열정적이었던 만큼 많은 학우들이 즐겁게 즐길 수 있도록 했다. 이러한 분위기 속에서 다소 늦은 시간에 응원제가 시작되었음에도 불구하고 모든 학우들이 끝까지 응원제를 함께 했다. 뜨거운 분위기를 이어가 응원제가 끝난 이후에도 다시 학과별로 친목을 도모하는 시간을 가진 뒤 새내기 배움터는 마무리되었다.

새내기 배움터에서 시간을 보낸 24학번 학우는 ‘대학교에서 새로운 환경과 사람에 적응해야 하는 걱정이 컸는데, 새내기 배움터에 가서 선배님, 동기들과 친해질 수 있었고 학교 생활에 대한 여러 정보를 얻을 수 있어서 좋았습니다.’라며, 소감을 밝혔다. 또한, ‘인터넷 매체를 통해 보았던 응원단의 무대를 실제로 보고, 직접 즐길 수 있었던 응원제가 가장 기억에 남고, 즐거웠습니다. 처음 응원제에 참여하는 후배들을 위해 선배님들이 열심히 도와주셔서 감사했고, 더 잘 즐길 수 있었던 것 같습니다.’라며, 새내기 배움터 활동 중 응원제가 가장 기억에 남았다고 밝혔다.

재학생으로서 본 기자 역시 24학번 학우들이 처음 마주한 대학교 행사에서 좋은 기억을 가지고 돌아갔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었다. 앞으로 과제 및 시험 등 학생으로의 역할을 다할 일도 많을 것이고, MT와 학교 축제와 같은 행사도 많을 것이다. 이런 수많은 날들을 동기 및 선배들과 즐겁게 보냈으면 좋겠다는 바람이 든다.

AICS Events

응원 OT 진행

응원 OT 참여자 이승우, 정희민 학우 인터뷰



개강시즌이 찾아오는 3월에는 기대를 안고 대학에 입학한 신입생들을 위한 행사가 많이 준비되어 있다. 그 중에는 우리 학교만의 특색 있는 행사도 있는데 바로 응원새로배움터(이하 응원OT)이다. 응원 OT는 고려대학교 응원단이 매년 3월에 주최하는 행사로 아직 응원이 익숙하지 않은 새내기, 편입생, 복학생 혹은 재학생 모두에게 응원을 즐기고 배울 수 있는 기회가 된다. 진정한 고대생으로 거듭나기 위한 몇 가지 관문 중 가장 중요한 고대의 응원문화가 자칫 생소할 수 있는 새내기들에게 고려대학교 응원단이 직접 가르쳐주는 행사인 만큼, 인공지능사이버보안학과와 학우들도 응원OT에 참여하였다. 이에 행사에 참여한 새내기들을 인터뷰 해보았다.

▲ 응원 OT 진행 후 단체사진

Q. 안녕하세요! 간단한 자기소개 부탁드립니다!

A. 24 이승우 : 안녕하세요. 이번 년도에 들어온 24학번 인사보 이승우입니다. 24 정희민 : 안녕하세요 24학번 대표 끼쟁이 정희민이라고 합니다!



▲ 24 이승우, 24 정희민

Q. 응원OT에 참여하시게 된 계기가 있을까요?

A. 24 이승우 : 저는 학기초 선배, 동기들과 함께 시간을 보내고 싶어 참가하게 되었습니다. 실제로 응원OT에 참여하여 선배들도 좀 더 알게 되고, 동기들과도 추억이 생겼습니다.

24 정희민 : 고려대 학생이 아니더라도 다 알고 있는 문화! 고려대학교 하면 떠오르는 대표적인 행사 중 하나인 응원제! 고려대학교의 대표 행사 중 하나라고 할 수 있는 행사인 만큼 많은 기대를 가지고 있었습니다. 신입생 입장에서는 선배들과도 친해질 수 있는 좋은 기회라 생각이 되었고, 고대만의 문화를 즐길 수 있는 기회라고 생각이 되어 만족고대 학생으로서 이걸 무조건 참여해야겠다고 생각했습니다.

Q. 응원OT에서 배운 응원가 중 가장 좋았던 곡은 무엇이었나요?

A. 24 이승우 : 가장 좋았던 곡은 '붉은 노을'입니다. 사실 응원 OT는 학기초 학우들과의 친목도모를 위해 참여했었어요. 응원가를 몰라서 동기랑 눈치보면서 가사집을 보며 더듬더듬 부른 기억이 납니다. 그러다 보니 아는 노래가 나오면 굉장히 반갑고 맘 편히 불렀는데, 그 중 가장 잘 알고 있고 동기들 중에도 모르는 친구가 거의 없어 나오자마자 서로 눈이 커지며 마주치고 같이 불렀던 노래가 바로 '붉은 노을'이에요. 그래서 가장 인상 깊고 지금도 축제, 응원제때 가장 목청 터져라 부르는 곡입니다.

24 정희민 : 'yeah yeah yeah'라는 곡입니다. 이 곡이 가장 좋았던 이유는 신나는 리듬과 멜로디로 들을 때마다 에너지가 생기는 거 같았고, 따라 하기 쉬운 안무와 고려대를 잘 표현한 가사들로 모두 즐길 수 있기에 가장 좋았던 곡으로 이 곡을 선정했습니다.

Q. 이번 응원OT, 참여하길 잘했다고 생각되시나요 ?

A. 24 이승우 : 저는 내년에 들어올 후배들에게도 추천할 생각이 있을 정도로 참여하길 잘했다고 생각해요. 학기 초에는 귀찮다는 생각이 들 수도 있지만, 나중에 대동제나 입실렌티, 정기고연전 등 학교축제에서 응원은 필수이고, 루터스 공연 때도 참을 수 없기에 꼭 배워두는 게 좋다고 생각해요. 다 즐기고 있는데 그 때 가서 버벅거리면 노는 맛이 안 나잖아요. 저는 가사를 잘 못 외워서 가사도 배울 수 있는 응원OT에 참여하여 나중에 응원할 때 특히 좋았어요.

24 정회민 : 앞서 응원제가 기대했던 행사 중 하나라고 했었는데 기대 그 이상으로 너무 재밌었습니다. 특히 다양한 응원가들을 알아가며 학교에 대한 소속감과 자부심이 생기는 좋은 기회였다고 생각합니다. 역시 열정 하면 고려대! 서로 이름조차 모르는 학생들이라도 고려대학교라는 이름으로 다 같이 뜨겁게 노래 부르고 응원하며 하나가 되어 즐기는 모습이 너무나 좋았습니다.

Q. 이후에 진행될 여러 학교 행사에도 참여하실 의향이 있나요 ?

A. 24 이승우 : 저는 학기초 선배들이 응원 어에 가서서 같이 춤추고 노래 불렀던게 굉장히 인상이 깊었거든요. 그러면서 선배들에게 내적친밀감도 올라가고, 몇 동기들과도 이것저것 부르다보면 더 돈독해졌거든요. 실제로 한 소심한 동기 친구도 그때 말 걸고 친해졌었습니다. 그래서 대동제랑 입실렌티 등 추후 여러 교내 행사에도 참여해서 동기, 선배들과 추억도 쌓고, 응원을 통해 '고대감'을 쌓아보고 싶습니다.

24 정회민 : 당연히 참가하죠! 너무 재밌게 즐기고 왔기에 이후에 있는 행사에도 참가할 의사가 있습니다!

취재: 뉴스레터 2기 김주빈('23)



2024년 역시 인공지능사이버보안학과 MT를 진행하였다. 올해는 신입생 수가 늘어난 만큼, 선후배 간, 동기간 친목 도모를 위해 조금 이른 3월에 진행하게 되었다. 학생회는 미리 짜둔 조를 조장들에게 미리 알려주어 MT 전 친목을 도모할 수 있는 시간을 가질 수 있도록 했다.

MT 당일, 과학기술 2관 217호에 모여 간단히 김밥과 음료수로 배를 채우고, 다 같이 버스에 탑승한 뒤, 태안의 신두리 일번지 펜션으로 향했다. 도착과 동시에 자유시간을 부여하여 레크리에이션 전 서로 얼굴을 익히며, 대화하는 시간을 가지도록 하였다. 그렇게 시간이 지나 세미나실에 모인 학우들은 학생회장의 인사말을 시작으로 간단한 연구실 소개를 한 뒤, 본격적인 레크리에이션을 시작하였다. 들리는 대로 노래 가사 쓰기, 인물 퀴즈, 진짜? 가짜? 등등의 여러 게임을 진행한 결과 1위 팀은 5조가 되었다. 레크리에이션으로 돌아오른 열기가 장기 자랑까지 이어져 한층 더 즐거운 시간을 보낼 수 있었다. 재밌게 힘과 열을 발산했으니, 다시 주린 배를 채울 시간이었다. 각 조별로 준비된 고기와 재료를 직접 구워 먹었으며, 때마침 학과 교수님들도 모두 오셔서 자리를 빛내주셨다. 캠프파이어와 함께 학우들은 돌아가며 노래를 부르기 시작했고, 이내 다함께 같이 부르며 즐거워하는 시간이 이어졌다. 무엇보다 이날의 하이라이트는 교수님들 역시 노래 실력을 뽐내 주셨다는 것이다. 덕분에 바비큐장의 분위기는 낭만으로 가득 차 있었다. 저녁에는 추웠던 3월이라 밖에서의 시간은 마무리하고 방에 모여서 날이 밝도록 시간을 보냈다. 다음날 모두 짐을 챙기고 다시 학교로 돌아가야 할 시간이 되었다. 학우들은 짐을 챙김과 동시에 방에 있는 쓰레기를 버리고 깨끗이 청소하기 시작했으며, 사고 없이 즐겁게 1박 2일을 마무리할 수 있었다.

MT에 참여한 24학번 학우는 '레크리에이션 1등을 한 이유에는 화이트보드에 조원의 캐릭터 그림, 응원 문구 등을 넣는 조원들의 적극성과, 열정 및 담합력이 큰 영향을 미쳤을 것이라고 생각합니다.'라며 1위를 할 수 있었던 이유를 손꼽아주었다. '레크리에이션을 통해 다양하고 재밌는 시간을 보내고, 동기들, 선배님들과 함께 바비큐를 하면서 다양한 이야기를 할 수 있어서 좋았고, 선배님들이 후배들을 챙겨주시는 모습을 보면서 저도 나중에 그런 멋진 선배가 되어야겠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라고 소감을 밝혔다.

아직 학기의 시작인 만큼 MT 때 만난 인연이 오래 지속되길 바라며, 소중한 재밌었던 기억으로 회상되길 바란다.



▲ MT 1등 상품을 증정하는 모습

과기대축제 진행

단과대 축제로 인사보를 알리다!

중간고사 기간이 끝나고 5월이 되면 대동제, 입실렌티 등 다양한 축제가 진행된다. 추가로 각 단과대학에서도 축제를 열기도 한다. 과학기술대학에서도 올해 과학의 날을 맞이하여 과학기술2관 뒷편에서 7일, 8일 양일간 단과대 축제를 개최하였다. 원래 7일 하루만 진행할 예정이었지만 예상보다 많은 비로 인해 8일까지 연장되어 진행되었다.

인공지능사이버보안학과 역시 과학기술대학 축제에 부스를 운영하며 참여하였는데 7일에는 많은 비가 내리기도 하여 낮부스만 암호편지 전달을 주제로 짧게 운영하였다. 암호편지 전달은 작년 크리스마스에 학생회에서 진행한 이벤트와 비슷한 방식으로 기획되었다. 참여자가 원하는 사람에게 편지를 작성하면 부스 운영자가 해당 내용을 암호화하여 미리 받아 둔 상대 SNS 아이디로 전송해주는 방식으로 진행되었으며, 이 때 암호화는 참여자의 대부분이 타과 혹은 타단과대 학우임을 고려해 간단하게 Base64로 인코딩하는 방식을 이용하였다.

8일에도 비 예보가 있었지만 다행히도 맑은 날씨가 유지되었다. 축제의 연장으로 인해 기존에 준비한 낮부스와 밤부스, 공연무대가 8일로 연기된 상태이기 때문에 모든 과의 부스에서도 원래 기획했던 이벤트를 낮부스에 올렸다. 인공지능사이버보안학과 역시 암호편지 전달 뿐만 아니라 기획해두었던 암호게임 이벤트도 진행하였다. 암호화된 문구를 게임처럼 제한시간 동안 복호화하여 원문을 찾아내는 방식으로 진행되었는데 학과의 특성과 재미를 모두 가지고 있어 많은 인기를 얻었다. 뿐만 아니라 참여자들에게 해독하기 전 어떤 암호가 사용되었는지 간단한 설명을 통해 암호 분야에 흥미를 일으킬 수 있도록 진행하였다. 역시 암호편지 전달과 마찬가지로 대상을 고려하여 적당한 난이도의 문제들로 치환암호 두 종류와 학과에서 매년 개최하는 KCTF에서 작년에 MISC분야로 출제된 적 있는 장미십자회 암호를 선정하였다. 원문은 어느정도 풀었다면 추측하여 맞힐 수 있도록 학과 FM구호(민족고대, 자주과기, 철통보안)에서 차용했다. 실제로 제한시간이었던 30초 내에 모두 복호화에 성공하진 못했더라도, 혹은 부분부분을 잘 못 해독하였어도 해당 내용을 바탕으로 추측하여 정답을 맞힌 참여자들이 많았다. 인공지능사이버보안학과는 밤부스도 참여하였는데 밤에는 주점을 운영하며 다양한 안주를 요리하여 판매하였다.

처음으로 개최된 과학기술대학 축제였지만 학과의 특성 소개와 재미 모두 잡아내며 운영해낼 수 있어 좋은 발판을 마련할 수 있었던 것 같다. 앞으로 이어질 과학기술대학 단과대 축제가, 축제에서 꾸준히 발전될 학과의 부스가 더욱 기대된다.



▲ 과기대축제 주점 진행 모습

편찬 위원

위원장 최수빈 (인공지능사이버보안학과 21학번)

위원 최은규 (인공지능사이버보안학과 18학번)
이창민 (인공지능사이버보안학과 20학번)
박수연 (인공지능사이버보안학과 22학번)
김주빈 (인공지능사이버보안학과 23학번)
배은서 (인공지능사이버보안학과 23학번)

집필 분담

이창민('20)

조금환 교수님 인터뷰,
재학생 수상 기록

최수빈('21)

개강총회

박수연('22)

새내기배움터,
학과 MT

김주빈('23)

응원OT,
과학기술대학 축제

집필 분담

발행일 2024.07.05

편집인 최수빈('21),배은서('23)

감수위원 김희석 교수님 (고려대학교 세종캠퍼스 인공지능사이버보안학과)

발행처 인공지능사이버보안학과 뉴스레터 편집 위원회